

# 아무도 가지 않은 길

2025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 목차

인사말	03
<b>빛나는 순간</b>	
2025 푸르메재단 10대 뉴스	06
숫자로 보는 2025년	08
재정보고	10
창립 20주년 기념 축시: 정호승 시인	12
<b>함께 이룬 기적, 함께 만들 미래</b>	
푸르메 20년 성과	16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현장	18
인터뷰   이주언 군	20
장애인 복지, 캐나다에서 길을 찾다	22
기부자 이야기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26
<b>함께 이룬 성장</b>	
푸르메소셜팜: 사회적 가치평가 결과	32
장애가족지원사업	36
산하기관 소식: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강화①	42
산하기관 소식: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강화②	44
인터뷰   이원일 원장 & 홍지연 부원장	46
산하기관 소식: 장애인과 지역사회 잇는 푸르메①	48
산하기관 소식: 장애인과 지역사회 잇는 푸르메②	50
<b>함께 나눔</b>	
2025 푸르메 캠페인	54
인터뷰   류미애 마케팅팀 차장	55
함께하는 이웃: 박성우 교사	56
함께하는 기업	58
<b>푸르다, 푸르메</b>	
푸르메재단 소개	62



2025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6년 4월 3일  
 발행처 푸르메재단 | 발행인 백경학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T 02-720-7002 | F 02-720-7025  
 홈페이지 www.purme.org  
 기획·편집 푸르메재단 마케팅팀  
 디자인 그래픽오션  
 표지 사진 잼잼레코드 김지애

“

변화하는 장애복지 환경에 발맞춰  
 혁신적인 서비스를 확장하며,  
 지역과 국가가 함께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푸르메가 더 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

2025년 푸르메재단은 스무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이 재단의 시작을 가까이에 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지난 20년을 떠올리면 감사와 책임이라는 두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푸르메재단의 시작에는 ‘장애인의 재활은 왜 이렇게 멀고 어려운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치료비 부담으로 삶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보자는 마음이 푸르메재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문을 열던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시민의 손길로 세워진 이 병원에서 아이들이 다시 걷고, 웃고,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볼 때마다 ‘푸르메재단의 설립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도전으로 여겨졌기에,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병원은 2026년 개원 1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70만 명 넘는 장애어린이가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병원은 결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라는 국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민간의 진심 어린 도전이 사회의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스무 살이 된 푸르메재단은 이제 또 다른 책임의 문앞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장애복지 환경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확장하며, 지역과 국가가 함께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푸르메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20년 또한 쉽지 않겠지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초심만은 잃지 않겠습니다.

푸르메재단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 무거운 책임감과 더 단단한 다짐으로 다음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사장 **강지원**



# 빛나는 순간

- 06 2025 푸르메재단 10대 뉴스
- 08 숫자로 보는 2025년
- 10 재정보고
- 12 창립 20주년 기념 축사: 정호승 시인

# 2025 푸르메재단 10대 뉴스



함께 이룬 기적, 함께 만들 미래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세상에 없던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푸르메소셜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소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사업 펼쳐  
장애가족 지원사업에 총 34억 원 투입



처음으로 마음 편히 검사받은 하루  
장애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실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찬 한 걸음  
2025 푸르메워크 남산 개최



푸르메의 20년을 보듬은 따스한 손길들  
『세상을 바꾸는 힘 - 희망을 심은 20인』 발간



영부인 김혜경 여사  
종로장애인복지관·푸르메센터 방문



복지 선진국에서 더 나은 길을 찾다  
캐나다 장애인 복지 현장 연구조사



장애인 교육·생활 환경,  
당사자 힘으로 바꾼다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공모전 개최

최첨단 기술로 재활의 희망을 키운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로봇재활치료센터 확장



## 숫자로 보는 2025년



### 총 지원인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 1,099,479명

### 지역사회복지사업

생애주기별 복지·지역연계 서비스, 체육·독서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

# 794,099명



### 재활의료사업

맞춤형 재활치료와 첨단 보조기기 서비스 등을 제때 지원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

# 261,587명

### 자립사업

우수한 직업훈련과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 받아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간 장애인 당사자

# 41,8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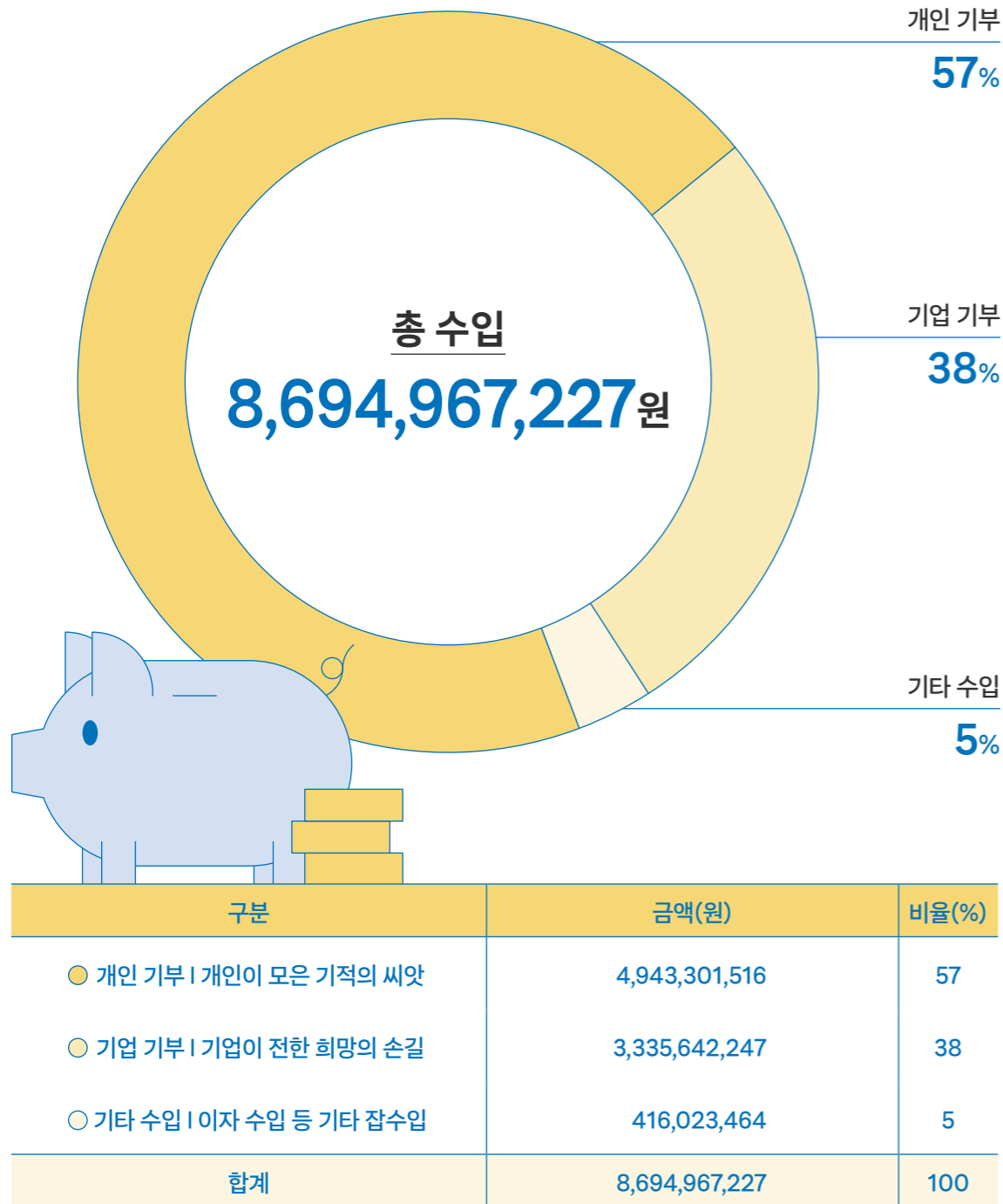
### 장애가족지원사업

의료·재활, 사회적응·자립, 교육·문화·여가 등을 지원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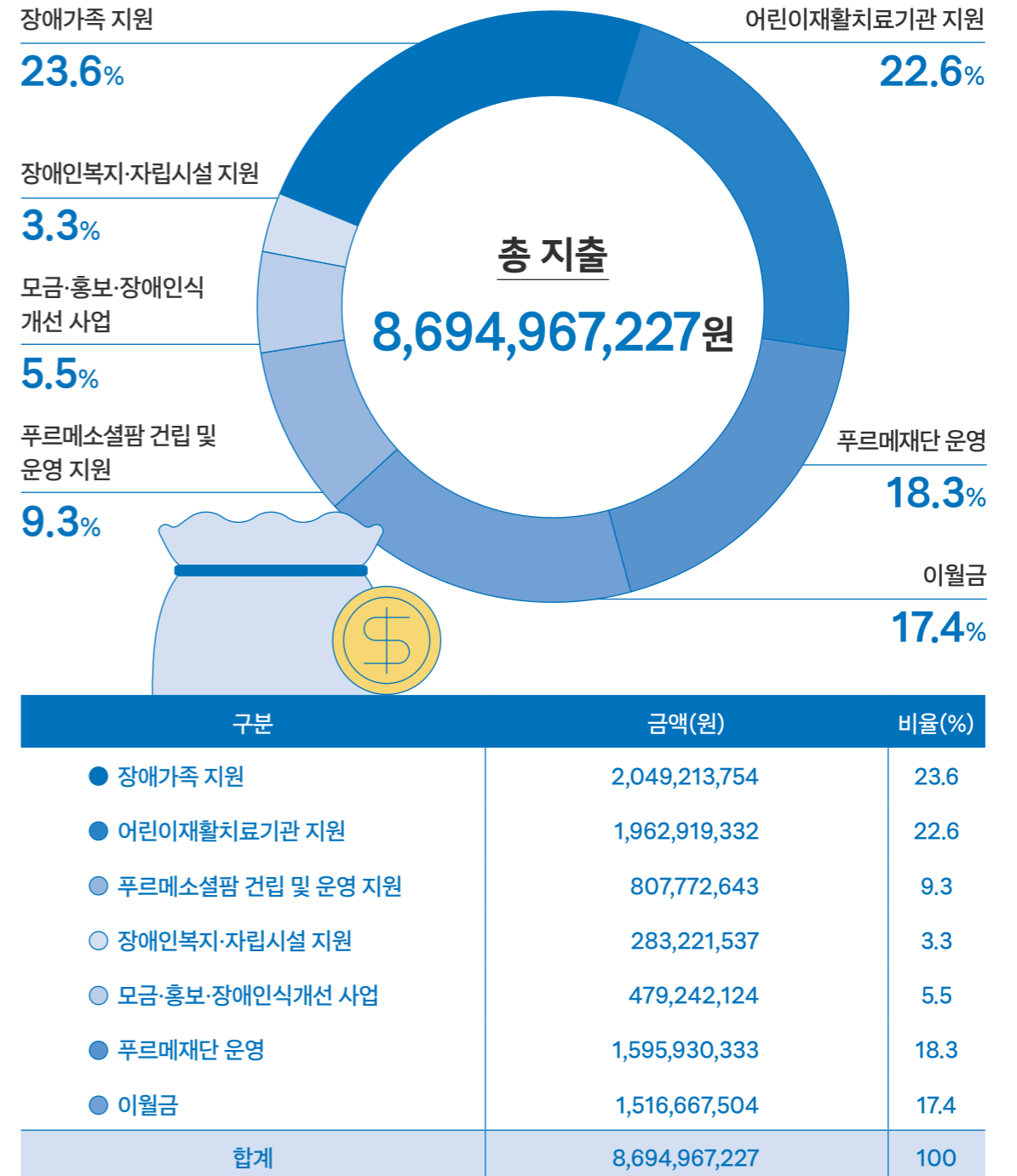
# 1,985명

재정보고

푸르메재단은 2025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기부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고자 연 3회의 정기이사회 등을 통한 엄격한 내부 심사와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푸르메재단은 2026년 비영리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로부터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효율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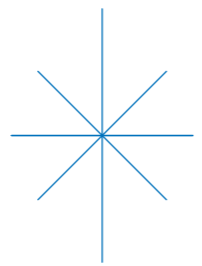
창립 20주년  
기념 축시

# 스무 살 청년 푸르메재단은 영원하리라!

20년 전 좁은 방에 책상 두 개를 놓고  
장애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재활병원 설립의 꿈을 꾸고  
발달장애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마련의 원대한 꿈을 꾸며  
사막 저 너머 높고 푸른 산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푸르메재단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이 한마디 말씀에 선한 의지를 다지며  
환자 중심 재활병원을 한국에도 만들자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통을 우리가 덜어주자  
백경학 황혜경 부부가 서로 사랑의 손을 잡고  
아침마다 하나씩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믿음의 기도를 올리며

무엇보다 시급히 장애인 전문 치과  
'푸르메나눔치과'를 개원하고  
민관협력으로 재활기관 '푸르메센터'를 건립하고  
재활치료를 마친 장애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행복한 베이커리&카페'의 문을 열고  
종로장애인복지관,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가  
들어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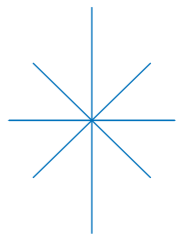


성공회 김성수 주교,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  
박완서 작가, 이해인 수녀, 이지선 교수, 석도준 치과의사,  
엄홍길 산악인, 김창완, 이은미, 조수미, 션 가수님들의  
헌신과 노력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강지훈, 유명인, 이철재,  
박점식, 이희석 님들의 정성어린 기부와  
김정주 넥슨 대표님의 아낌없는 기부와

1만여 명 시민들과 500개 기업의 기부의 등불이  
환히 밝혀져 드디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한  
이 거룩한 감사와 이 찬란한 기쁨!

이 기쁨은 더욱 눈부시게 이어져  
이상훈 장춘순 부부가 기증한 경기도 여주시 부지에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스마트농장  
'푸르메소셜팜'을 건립  
발달장애 청년들의 일터가 되어  
해마다 희망의 방울토마토가 알알이 열리고  
베이커리 카페 '무이숲'에서 행복의 향기가  
멀리멀리 퍼져나가  
어느새 스무 살 청년으로 자란 푸르메재단  
815만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랑이 된 푸르메재단  
당신이 사랑입니다  
매월 기부의 가치를 실천하는 5만여 명의 기부자님  
당신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푸르메재단의 심장입니다  
우리 다시 저 황막한 도시의 사막을  
사랑과 기적의 푸른 산으로 만들며  
아름답고 선한 청년 푸르메재단을 사랑하리라  
스무 살 청년 푸르메재단은 영원하리라



정호승 시인



# 함께 이룬 기적, 함께 만들 미래

- 16 푸르메 20년 성과
- 18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현장
- 20 인터뷰 | 이주언 군
- 22 장애인 복지, 캐나다에서 길을 찾다
- 26 기부자 이야기 |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 푸르메 20년 성과

# 5만 명 기부자가 925만 명 장애인과 가족의 삶 바꾸다

### 숫자로 본 푸르메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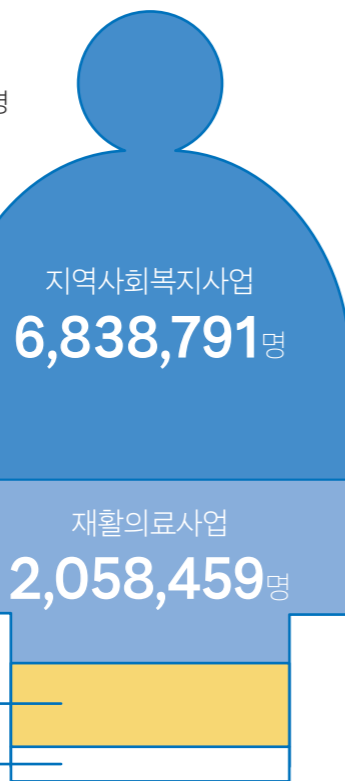
2025년 푸르메재단은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05년 설립된 이래 수많은 기부자의 나눔과 지원 덕분에 2012년 서울 종로에 푸르메재활센터(현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를, 2016년 서울 마포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을 건립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돌던 장애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곳이 생겼고, 일자리가 없어 집안에 고립되던 발달장애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우리 사회 일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는 총 5만 5,656명, 총기부액은 약 1,207억 원에 달합니다(2025년 12월 31일 기준, 이하 기준 동일). 그 덕분에 국내 장애인 의료·복지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며, 총 924만 9,928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지원 사업>

총 지원인원

**9,249,9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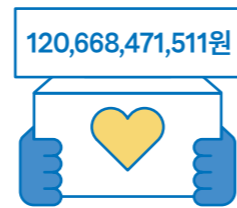


### <모금 통계>



총 기부자

**55,656**명



총 모금액

**1,207**억 원



푸르메재단은 2007년 푸르메나눔치과 개원을 시작으로 재활의료 사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총 205만 8,459명이 푸르메재단과 산하기관을 통해 맞춤형 재활치료와 첨단 보조기기 서비스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전 푸르메재활센터), 종로아이존,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푸르메치과 등이 장애어린이와 성인 장애인의 재활을 도왔지요.

또 2011년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의 개관을 돕고 운영까지 맡으면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종로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수탁하며 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 복지·지역연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총 683만 8,791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 지역주민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바로 서도록 우수한 직업훈련과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푸르메소셜팜, 푸르메직업재활센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파니스) 등을 통해 총 33만 1,581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로 나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장애가족지원사업을 통해서 총 2만 1,097명의 장애인과 가족을 도왔습니다. 누적 지원금은 198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 보조기기와 정형신발, 특기·적성 교육비,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 및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어린이가 세상으로 나아갈 문을 열고, 장애청년이 살아갈 일터를 만들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많은 혁신을 가져온 푸르메재단. 앞으로도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과 노후 준비 문제 등을 풀어가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현장

## 함께 이룬 기적, 함께 만들 미래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 현장

2025년 10월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장애인리와 가족, 기부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오랜 시간 푸르메재단의 여정을 함께해온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을 채웠습니다.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현장 모습입니다. 이주연(21) 군을 비롯해 이문경(13)·곽예은(19)·안지영(23) 양 등 장애 어린이·청년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2005년 창립한 푸르메재단은 2016년 서울 마포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2022년에는 발달장애 청년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을 차례로 건립하며 국내 장애인 의료·복지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푸르메재단이 해온 일의 가치를 알기에, 이날 기념식에는 많은 분이 찾아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영부인 김혜경 여사는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우원식 국회의장, 김정욱 넥슨 대표, 이재교 NXC 대표,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야구선수 이정후,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시민 27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방송인 이금희 씨가 기념식의 사회를 맡아주었고요.

또 지난 20년간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한 기부자, 자원봉사자, 기업, 재단 임직원 등 12명(단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철인3종경기 등에 나서며 장애인 가족을 도운 박은총 씨 가족, 200억 원을 기부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초석을 놓은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 푸르메소셜팜 건립비부터 판로까지 지원한 SK하이닉스 등이 수상했습니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씨가 장애인 첼리스트 안희승 씨와 협연하며 큰 감동을 줬습니다.



김성수 초대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장

행사의 마지막, 푸르메재단의 여정을 이끌어온 백경학 상임대표가 무대에 섰습니다. 백경학 상임대표는 지난 20년간 푸르메재단의 곁을 지켜준 수많은 분께 감사 인사를 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전문센터 건립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재활,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모델을 통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푸르메재단의 20년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시간이었고, 그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다시 ‘미래’로 이어집니다. 장애어린이의 첫걸음, 청년의 첫 출근, 가족의 첫 미소. 그 모든 순간에 푸르메가 함께해왔듯, 앞으로의 20년도 푸르메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는 백경학 상임대표, 박태규 공동대표, 이순우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이사장, 이철재 기부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 인터뷰

# 힘든 재활 이겨내고 대학 진학한 이주언 군을 만나다

“재활은 긴 터널과 같아요. 어둡고 끝이 없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나는 출구가 보이거든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빌딩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소형차 한 대. 운전석에서 내리는 청년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섭니다. 태어날 때 입은 뇌 손상(백질연화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이주언(21) 군입니다. 그는 오랜 꿈이던 교사가 되기 위해 2025년 3월 경인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고 작은 차를 마련했지요. 주언 군은 “제 걸음으로는 강의실 간 이동이 불가능해 보여서 이동 수단부터 마련했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 “푸르메를 못 만났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것”

제 발로 걷고 운전까지 하는 지금과 다르게 주언 군은 13살까지 휠체어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성장기가 되면서 근육이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몸 곳곳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중학교 입학 1년 미루고 2017년 무릎을 펴기 위한 수술을 받았지요. 뼈 절단, 신경 차단, 인공뼈 삽입 등 무려 10개의 수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푸르메와 인연을 맺은 건 이 무렵입니다. 수술 후 재활을 위해 푸르메재단 넥스어린이재활병원(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재활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주언 군은 투정 한 번 않고 이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시기’로 여깁니다. 김하나 치료사님이나 홍지연 부원장님처럼 저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계셨고, 그만큼 재활 성과도 컸으니까요. 가장 좋은 점은 그때 제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운동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이예요. 그 덕분에 병원에 가지 못할 때도 혼자서 꾸준히 재활할 수 있었거든요. 푸르메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 “나만의 작은 목표 정해 성공해 보는 경험 필요”

푸르메에서 재활을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주언 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오랫동안 바라온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첫걸음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원과 다르게 밖에서 걷기는 훨씬 힘들었어요. 500보 걷는 데 30분 넘게 걸렸죠. 걸음 수를 점차 늘려 1만 보를 걷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고교 진학 후에는 교대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부하느라 재활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지자, 부모님 차로 등교하는 대신 걸어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5km. 주언 군의 걸음으로는 50분이 걸리는 고된 길입니다. 처음에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학교에 도착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방학이면 일주일에 3~4번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며 재활을 이어갔지요.

“재활은 긴 터널과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나는 출구가 보이거든요. ‘100걸음 걷기’처럼 자기만의 작은 목표를 정해 성공해 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주언 군. 길고 힘겨운 재활을 웃으며 이겨낸 주언 군이기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잘 헤쳐 나가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가 걸어갈 길은 많은 장애어린이와 가족에게 희망을 주겠지요. 꿈을 향한 주언 군의 도전을 푸르메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이주언 군 모습

## 장애인 복지, 캐나다에서 길을 찾다

# 삶을 중심으로 사람과 자원을 촘촘하게 이어야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어떻게 가능할까. 2025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푸르메재단 조사단이 장애인 복지 선진국인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비밀1

### 경제 안전망 구축 세계 유일 장애인 적금 제도 운영

보통의 삶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조사단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2008년 도입한 '장애인 적금 제도'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등록장애인저축계좌)를 이용하는 한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RDSP는 장애인 당사자(또는 가족)가 저축한 돈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해주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저축 제도입니다. 단순한 연금이나 일시적인 수당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간 함께 저축하며 장애인의 노후를 뒷받침합니다.

연간 1,500캐나다달러(약 150만 원)를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500캐나다달러(약 350만 원)까지 더해줍니다. 이 지원금은 평생 최대 7만 캐나다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도입을 캐나다의 장애인 부모 모임인 비영리단체 '플랜(PLAN, Planned Lifetime Advocacy Network)'이 주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푸르메재단 조사단이 만난 발달장애인 커스틴 메인(Kirsteen Main) 씨와 활동지원인 모습

30여 년 전 캐나다로 이민 온 황희철(가명·68) 씨는 딸 로즈(가명·32) 씨의 RDSP 계좌를 11년째 유지 중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1,400캐나다달러 중 500캐나다달러를 납입합니다. 지난 11년간 총 5만 8,000캐나다달러를 적립했고, 정부는 그에 맞춰 총 6만 4,000캐나다달러를 지원해 원금 12만 2,000캐나다달러(약 1억 2,000만 원)가 모였습니다. 황씨는 "RDSP 덕분에 딸의 미래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현재의 행복감도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라르시(L'Arche) 밴쿠버에서 거주하는 고령 발달장애인의 모습



홈쉐어를 이용하는 이민석 씨와 홈쉐어 제공자 김재식 씨

비밀2

### 주거 안전망 구축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는 주거 지원 정책

조사단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제도는 '홈쉐어(Home Share)'였습니다. 홈쉐어는 장애인이 다른 가정에서 거주하며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민석(가명·32) 씨는 2023년 4월 1일부터 부모 곁을 떠나 홈쉐어 제공자인 김재식 씨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홈쉐어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민석 씨는 물건을 버리는 강박증이 줄고, 지독한 편식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요.

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BC주 정부가 홈쉐어 제공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해당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평가해 최경증(Level 1)부터 최중증(Level 5)까지 매달 1,500~5,300캐나다달러(한화 약 150만~530만 원)를 홈쉐어 제공자에게 지급하지요. 대신 '홈쉐어 서비스 표준규정'을 제정해 강력하게 모니터링합니다. 홈쉐어 제공자는 주정부의 담당기관 CLBC의 가정환경 조사(Home Study)를 통과해야 하고 분기별 방문조사, 수시연락, 교육훈련, 비상시 보고 등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유니티가 2016년 건립한 코러스 아파트는 캐나다 내에서도 모범적인 주거 지원 모델로 꼽힙니다. 총 71가구가 사는 임대주택으로, 발달장애인 20가구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 노인, 필수노동자, 학생 등 비장애인 51가구가 거주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또 직접 일해서 얻은 소득과 정부 지원금으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냅니다.

유니티가 건립한 코러스 아파트 전경



코러스 아파트에 사는 발달장애인은 하루 평균 2시간가량 사회복지기관 직원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리, 쇼핑 같은 일상 활동을 함께합니다.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요. 입주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라르시(L'Arche) 공동체도 장애인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사단이 방문한 버나비(Burnaby) 시의 라르시 밴쿠버 건물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3개의 그룹홈과 10개의 독립적 생활공간, 주민(비장애인)을 위한 29개의 임대(공동)주택으로 구성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라르시 구성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핵심 멤버(Core Member)와 어시스턴트 멤버(Assistants Member)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쇼핑, 산책 같은 가사 활동부터 일상생활 전반을 함께합니다. 어시스턴트는 핵심 멤버와 함께 생활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단순한 '돌봄 제공자'를 넘어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주거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고민하는 푸르메재단 조사단에게 장애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결3

###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조사단은 이외에도 캐나다에서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 장애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오티즘 BC는 자폐를 치료해야 할 질병이나 의료적 결함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방식'으로 존중했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지요.

발달장애인협회(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ociation-DDA)는 한 사람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원 서비스를 갖추고 이를 유기적으로 제공해 조사단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DDA의 통합보육센터를 다니던 아이는 자라서 직업 준비 기관인 '잡 웨스트(Job West)'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사회적 기업인 '스타웍스(Starworks)'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마친 뒤에는 드롭인센터에서 주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가를 보내고, DDA가 운영하는 그룹홈으로 퇴근하구요. 이 모든 것이 DDA라는 하나의 기관 안에서 연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캐나다의 장애인 복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조사단이 방문한 'CLBC(Community Living BC)'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CLBC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 있는 수백 개 장애인 서비스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BC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해 주는 기관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중심 기관이지요.

CLBC는 주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직접 배분하고 집행하는 막강한 예산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니티, 라르시 밴쿠버, 발달장애인협회 등 BC주 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이들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설계합니다.

캐나다처럼 한 사람의 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가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일상을 이루려면, 장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집, 지원주택, 홈쉐어, 그룹홈 등의 다양한 주거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주거지에 살면서 어떤 날에는 지역사회 안의 서비스 제공 센터(drop in center)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고, 동시에 낮에는 주간 프로그램(day program)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요. 또 본인이 원한다면 고용 지원 서비스(employment services)의 지원을 받아 일주일에 하루든 이틀이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관계와 기회를 촘촘하게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캐나다의 훌륭한 실천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발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맞는 새로운 연결 방식을 발명해 나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부자 이야기

# '감사편지 전도사'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2008년 푸르메재단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이별노래', '수선화' 등 당신의 시를 낭송한 뒤 시를 지은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는 인문학 강연이었습니다. 어린이 가족부터 휠체어를 탄 장년의 부부까지 백 명 넘는 사람들이 정호승 시인의 낭독을 들으며 눈물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중년의 부부가 전통 휠체어에 앉은 청년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스물여섯 살인 제 아들입니다. 근이영양증으로 장애를 가졌습니다. 모두 스무 살을 넘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스무 살 이후 아들이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외국여행을 가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다르더군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 제도와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푸르메재단이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과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푸르메재단 후원에 참여했고 2014년 고액후원자 모임 '더미라클스'가 발족하자 1호로 가입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의금을 기부했고, 2020년 유산기부보험에 가입해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푸르메재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단이 일을 벌일 때마다 발 벗고 나섰습니다.

## 어머니, 내 어머니

어느 날 박 회장에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받았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박점식, 울림)였습니다. 책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회한이 절절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박 회장을 키운 호랑이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꽃다운 20대 어머니는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이 다섯 살이 되자 물을 떠나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목포에서 뱃길로 반나절 거리인 흑산도였습니다. 품삯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아들이 기죽지 않게 늘 새 신과 새 옷을 사입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섬에서 유일하게 남의 집 셋방살이를 했습니다. 어렵게 살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감을 키워주신 덕분이지요."

행여 '아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들을까 봐 엄하게 대했기에, 아들은 동네에서 가장 매를 많이 맞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자신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주에게 속아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긴 글렀구나' 싶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입에 댔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반이 되자 어머니가 갑자기 매를 내려 놓았습니다. 아들을 앉혀놓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고등학교에 보낼 테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박 회장은 이때 어머니 말씀이 매 맞는 것보다 열 배나 더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한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명문 목포상고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진학한 아들은 방학이 되면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한번은 친구들과 집에 왔다가 이웃집 염소를 몰래 잡아먹고는 목포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그길로 아들을 찾아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내가 바르게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공부는 해서 무엇하겠느냐" 하고는 아들 책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2014년 더미라클스 회원 가입식에서 아들 동훈 씨(사진 맨 왼쪽)와 함께

### 성공의 그림자



어린 시절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박 회장은 구로공단 노동자와 백화점 점원을 거쳐 꿈에 그리던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경력이 쌓이자 작은 회사를 창업했지요. 회사는 어느덧 직원 백 명이 넘는 중견 세무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생 끝에 ‘징하고 징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할수록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매일 아들을 업어 등학교시킨 아내는 양쪽 무릎 연골이 망가졌습니다.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서 태풍 같은 변화 앞에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몰려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직원들의 긍정적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센터를 만든 뒤 직원들에게 고객상담에 집중하도록 요

구했습니다.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지시에 직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직원들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뇌 과학자와 심리학자가 쓴 논문을 읽게 됐습니다. 하루 다섯 가지 ‘감사편지’를 3주 동안 쓰고 나면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뇌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날부터 박 회장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를 체험하자 직원들에게도 함께 쓰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주저하던 직원들도 하나둘 서로에게 감사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간 감사편지가 자리 잡자 이번에는 고객에게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갑질하는 진상 고객에게 감사편지를 쓰라니, 직원 모두 기막혀했지만 박 회장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동참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자 거짓말처럼 고객도 늘어났습니다.

### 전하지 못한 1천 통의 편지

박 회장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1천 통의 감사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저를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비록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아들을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의 좋은 추억도 정리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긍정의 힘을 가르쳐주신 어머니가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삶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630통의 편지를 쓸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1천 통의 감사편지를 쓸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어머니 영전에 바치고 남은 370통을 마저 썼습니다. 그렇게 1천 통의 편지를 쓰면서 마치 어머니가 뒤에서 안아주는 듯 따스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들을 돌보는 아내와, 장애가 있는 오빠 때문에 늘 많은 걸 양보해 온 딸에게도 1백 통의 감사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박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날카롭던 인상이 누그러졌다, 편안해 보인다, 젊어졌다’는 인사를 듣게 됐습니다. 결재를 받으러 올 때마다 심호흡하며 긴장하던 직원들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박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후원자 클럽 ‘아너소사이어티’에도 가입했습니다. 감사편지가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이 졸업한 흑산도초등학교에 연락해 필요한 게 없는지 물었고, 아내가 다니는 성당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기부천사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어려움 속에서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리며 사모곡을 쓰면서 박점식 회장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백경학 상임대표



1990년 세무사무소 개업식에서 가족과 함께

# 함께 이룬 성장

푸르메소셜팜



- 32 푸르메소셜팜: 사회적 가치평가 결과
- 36 장애가족지원사업
- 42 산하기관 소식: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강화①
- 44 산하기관 소식: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강화②
- 46 인터뷰 | 이원일 원장 & 홍지연 부원장
- 48 산하기관 소식: 장애인과 지역사회 잇는 푸르메①
- 50 산하기관 소식: 장애인과 지역사회 잇는 푸르메②

## 푸르메소셜팜 사회적 가치평가 결과

# 발달장애 청년 일터가 보여 준 가치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터. 푸르메소셜팜은 발달장애 직원과 그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직장일까요? 또 우리 사회에는 어떤 가치를 보여 주고 있을까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푸르메재단은 2023년부터 한양대 임팩트리서치랩 연구팀과 함께 사회적 성과 측정에 나섰습니다. 3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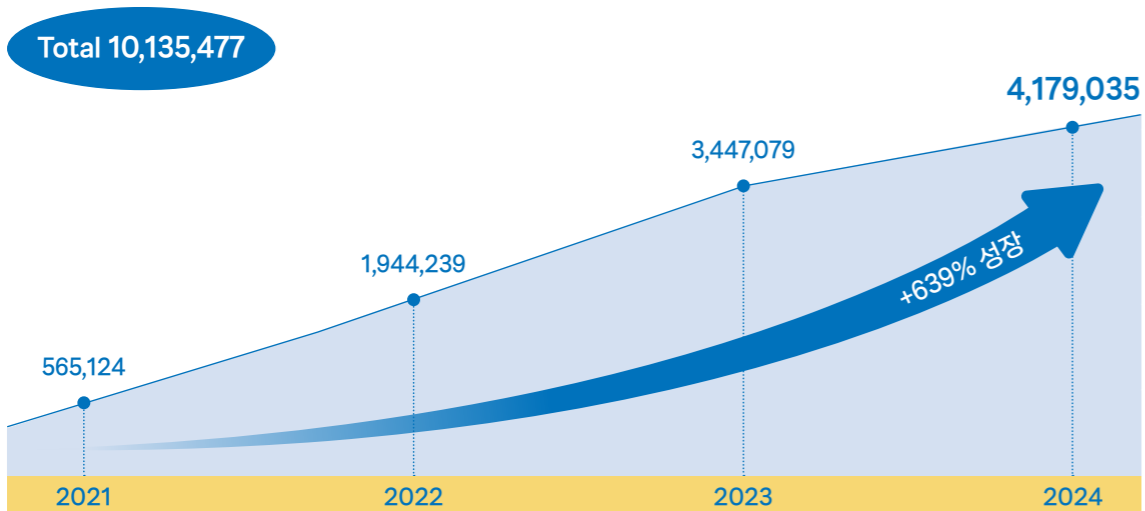
### 경제적 가치 101억 원, 사회적 가치 140억 원 창출

연구팀은 푸르메소셜팜의 성과와 가치를 알기 쉽게,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구분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말 그대로 얼마나 탄탄한 회사인지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관련된 많은 사람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뜻하고요. 둘을 합하면 푸르메소셜팜의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지요.

먼저 경제적 가치를 살펴볼까요? 푸르메소셜팜은 지난 4년간 약 101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매출을 기반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가치는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했지요. 푸르메소셜팜이 장애청년 일터로서 오래 유지되며 발전할 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푸르메소셜팜이 만든 경제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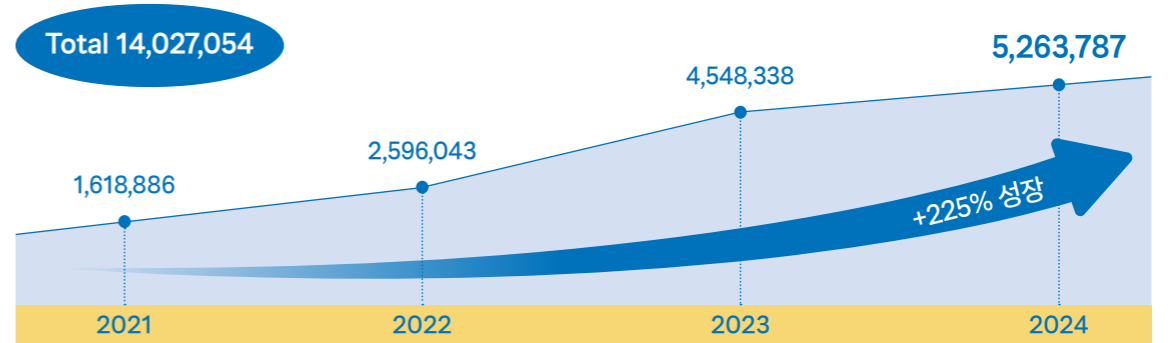
(단위: 천 원)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는 어떠했을까요? 연구팀은 푸르메소셜팜의 사회적 가치를 크게 ▲양질의 장애인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식 개선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측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는 장애인 직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넘어,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한 것 등을 성과로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40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 역시 매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푸르메소셜팜이 만든 사회적 가치

(단위: 천 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모두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즉,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장을 운영해 매출을 높인 것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포용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푸르메소셜팜이 앞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총가치 창출 배수 1.6배, 100만 원 투자 시 160만 원의 가치 창출

푸르메소셜팜이 4년에 걸쳐 창출한 총가치(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합)는 약 241억 원, 연평균 60억 원입니다. 특히 2021년 22억 원, 2022년 45억 원, 2023년 80억 원, 2024년 94억 원 수준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팀은 "사회적 가치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보수적 측정 결과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비용 대비 총가치 창출 배수는 연평균 1.6배로 나왔습니다. 이는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에 대해 사회에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약 160만 원 수준의 총가치를 만들어 장애인 직원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연구팀은 "총가치 분석 결과, 푸르메소셜팜의 경제적 자립성과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두 공간이 장애인 직원의 고용 안정,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인식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높은 업무 만족도, 강한 성장 욕구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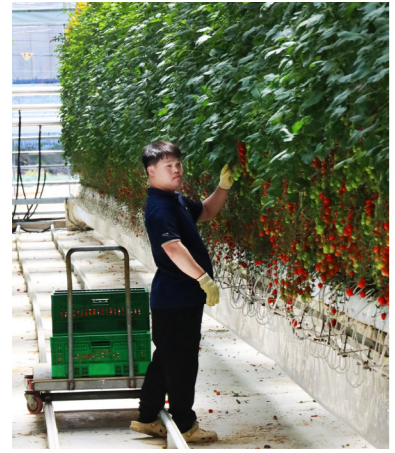
연구팀은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에도 주목했습니다.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푸르메소셜팜 입사 후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입사 후 전반적으로 업무에 잘 적응했습니다(업무 적응 수준 4.5점/5점 만점). 직무적합성(4.2), 일에서 느끼는 자존감과 보람(4.3) 등도 모두 높았습니다. 반대로 일할 때의 신체적 어려움(2.4)이나 기술적 어려움(2.2)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푸르메소셜팜이 직원 개인에 맞는 직무를 잘 설계하고, 적절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직무훈련 같은 지원체제도 잘 갖췄다는 뜻이지요.



장애인의 직무 만족도 수준

장애 이해 수용	4.4	
교육 기회	4.3	
복리후생	4.5	
인사공정성	4.2	
대인관계	4.3	
발전 가능성	4.3	
근로시간	4.2	
근로환경	4.4	
일의 내용	4.3	
취업 안정성	4.1	
소득	4.1	(5점 만점)



직무만족도는 전체 평균 4.3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특히 복리후생(4.5), 근로환경(4.4), 장애 이해 수용(4.4), 일의 내용(4.3), 교육기회(4.3), 대인관계(4.3), 발전가능성(4.3) 영역에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푸르메소셜팜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꾸준히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긍정적 자기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하루 4시간)에 대한 인식도 인상적입니다. 지금이 좋다(54.0%), 더 길게 일하고 싶다(44.0%)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의 근로시간이 직원에게 무리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월급에 대해서는 80%가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94%의 직원이 푸르메소셜팜에 계속 다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교육을 더 받고 싶다는 의견도 86%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성장 욕구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 입사 후 몸·마음 모두 건강해져...삶 전체가 긍정적 변화



장애인 직원의 가족이 느끼는 변화는 더 큼니다. 입사 후 장애인 직원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족들은 신체건강 개선(4.4), 심리·정서적 건강 개선(4.5),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4.4), 일상 다변화(4.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4.4) 등에서 장애인 직원의 삶 전반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정 내 경제적 측면에서도 월평균 80만 원가량 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가족이 관찰한 장애인 직원의 입사 후 삶의 변화

신체 건강 개선	4.4	
심리·정서적 건강 개선	4.5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4.4	
일상 다변화	4.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	4.4	(5점 만점)

장애인 직원의 사회적 변화도 크게 나타납니다. 사회적 관계 확장(65.2%)과 신체활동 증가(60.9%)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다채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및 여가·취미 활동(43.5%), 교육 및 자기개발 활동(39.1%)도 증가했습니다. 입사 후 장애인 직원의 사회참여 활동은 월평균 20.6시간 늘었습니다.

장애인 직원의 가족에게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족 간 대화 및 분위기의 긍정적 변화(4.6), 정서적 여유 또는 안도감 증가(4.3), 불안감 또는 우울감 감소(4.1), 경제적 부담의 감소(4.1), 전반적 삶의 만족도 향상(4.3) 등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대화 및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70%로 높게 나타났지요. 연구팀은 “푸르메소셜팜이 단순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넘어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푸르메소셜팜은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일까.’ 이 질문에 장애인 직원, 가족, 관계자의 93.5%가 평균 4.6점의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장애인이 존중받는 일터,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일터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푸르메소셜팜과 같은 좋은 일자리 모델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할 수 있도록 푸르메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가족지원사업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교육·자립 등 다양한 분야를 고르게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형제자매, 부모 등 가족 단위로 포괄 지원해 가정의 안정을 도왔으며, '장애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총 사업비 **3,423,797,790**원    총 지원자수 **1,985**명



### 재활의료 지원

장애어린이가 적기에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① 사업비    ② 지원자

-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① 363,985,740원  
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재활치료비 지원    ② 317명
-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① 220,113,900원  
치료비, 보조기구, 소모품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지원    ② 66명
-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① 260,004,200원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치료비 지원    ② 101명

### 지원자 한마디

아이가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으로 6년째 치료 중입니다. 처음엔 누워만 있던 아이가 계속 치료받으면서 지금은 걷고 뛰고 저를 보며 웃게 됐습니다. 특히 케톤식을 지원해 주는 곳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푸르메재단의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덕분에 케톤식을 꾸준히 해 경련도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 기대해요. 고맙습니다.

-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이하영(가명) 어린이 보호자

## 사회적응·자립 지원, 장애 인식 개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① 사업비    ② 지원자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① 73,297,000원  
예체능 분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② 26명
- 보조기구 지원사업**    ① 1,945,102,880원  
일상생활 및 이동·학습 편의를 위한 보조기구 지원    ② 840명
- 정형신발 지원사업**    ① 4,695,000원  
독립적 활동을 위한 보행 기능 향상 지원    ② 10명
-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① 35,000,000원  
장애인 (예비)창업가를 선발해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제공    ② 5팀
- 일상변화 프로젝트**    ① 65,217,300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누구나 벤치를 전국 (서울·인천·당진)에 설치

### 지원자 한마디

푸르메재단의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은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돼 장애인 당사자인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유전자 시 분석 기술 특허를 등록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2기 최우주 대표

## 교육·문화·여가 지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보통의 일상을 누리도록 교육과 문화·여가를 지원했습니다.



### ① 사업비 ② 지원자

####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비장애 형제·자매 위한 교육비(학습·예체능)와 오프라인 워크숍 제공

① 194,092,430원

② 132명

#### 비장애 형제·가족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및 관계 개선 지원

① 40,992,000원

② 32명

#### 가족여행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의 편안한 휴식과 여가 활동 지원

① 120,151,400원

② 178명

#### 문화공연 지원사업

장애어린이 가족 위한 공연 초청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① 66,145,940원

② 197명

#### 장애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장애인 당사자와 주돌봄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관리 및 위험질환 조기대응을 지원

① 35,000,000원

② 48명

### 지원자 한마디

저는 세 아이를 혼자 키웁니다. 장애가 있는 막내의 병원비로 생계비 대부분을 지출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엄두도 못 낼 상황에서 푸르메재단의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더해 오프라인 워크숍으로 아이들이 위로받고 공감할 기회까지 만들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 지원 김선아(가명) 학생 어머니

## 장애가족 인터뷰

### 희망을 준 아이 효정 씨 가족 이야기

2년 전 여름, 네 자녀와 함께 떠난 가족여행에서 셋째 준희가 갑자기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3주를 지낸 뒤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5개월이 넘는 치료 끝에 '상세 불명의 뇌전증 지속상태로 인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애 판정으로 엄마 효정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병동을 오가며 준희의 치료에 집중하던 어느 날, 이번에는 둘째 가희와 넷째 준서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희의 돌발 행동 때문에 가희와 준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손길이 가장 필요한 6살, 8살이었는데, 제가 준희를 챙기느라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탓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하던 때, 효정 씨는 푸르메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희귀난치질환자가족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만났습니다.

효정 씨와 세 아이는 지원을 통해 2025년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둘째 가희와 넷째 준서는 놀이 활동, 준희는 감각 및 행동 조절 훈련도 받았지요. 효정 씨는 자녀에 대한 마음 나눔과 양육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

했습니다. 어느새 가희는 미술, 준서는 축구를 비롯한 운동에서 실력을 뽐내게 되었죠. 가희는 상담일을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날로 꼽기도 했습니다. “결핌을 느꼈을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디에도 속마음을 토로하지 못하던 효정 씨도 상담 치료 가운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걸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어머니, 참지 마세요. 힘드신 게 당연해요. 다 이야기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상담을 통해 효정 씨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 더 많다는 것, 나아가 자신의 삶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현재 효정 씨는 장애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직장에 다닙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삶이 바닥을 쳤지만, 그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모두 푸르메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덕분이지요. 앞으로 제게 일어날 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 처음으로 마음 편히 검사받은 하루, 장애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현장을 가다



## “저 용감하죠? 박수 한 번 쳐 주세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본관 2층 건강증진센터 채혈실. 한쪽 팔에 고무줄을 묶고 주먹을 쥐었다 펴며 채혈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전승완(31) 씨의 말에 주위 사람들의 웃음이 터지고, 곧이어 박수가 나옵니다. 이제 바늘이 들어갈 시간, 옆에 선 의료진이 다소 굳은 듯한 승완 씨의 어깨를 도닥이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주세요”라고 말을 건넵니다. 무사히 채혈이 끝나자 승완 씨는 “저 진짜 잘했죠?”라며 씩 웃습니다. 푸르메재단이 산하 복지관 3곳(과천시장애인복지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종로장애인복지관), 서울의료원과 함께 진행한 ‘장애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현장 모습입니다.

## 사전교육으로 두려움 줄이고, 검진 동선도 바꿔

이 사업으로 검진받은 사람은 발달·뇌병변 장애인 28명과 이들의 보호자 20명입니다. 이날 서울의료원은 본관 2층 건강증진센터A를 통째로 비우고 장애인 수검자들만 받았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만을 위한 검진을 진행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이 어렵고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장애인들이 잘 검진받을 수 있도록 각 복지관에서는 검진 일주일 전 사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거나 실제 검진 시 필요한 숨참기, 숨 뱉기 등도 연습했지요. 검진항목별 주의사항도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김홍태(30) 씨는 “무서운 피검사를 오늘은 잘 받았다”며 “교육받은 게 도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15명이 이날 검진을 도왔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이현석 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 간호사·임상병리사 30명이 검진에 나섰습니다. 발달·뇌병변 장애인을 잘 도울 수 있는 베테랑 직원으로만 의료진을 꾸렸지요. 장애인 검진에는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의료원 측은 장애인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 검진과 동선도 달리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별다른 사고 없이 검진이 진행됐습니다. 자폐 장애인 아들과 함께 검진받은 오승호(가명·57) 씨는 “사고 없이 기본 검사만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는데, 예상보다 더 검사를 잘 받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 의사소통 노력 등 장애인 검진 환경 조성 필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절반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23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서 장애인 수검률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54.8%, 자폐성장애인 52%로, 전체 장애인 수검률 63.5%보다도 10%포인트가량 낮습니다.

낮은 수검률은 발달장애인의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높은 사망률과도 연관됩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평균 사망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자폐성장애인 28.1세로 국민 전체 평균수명(83.5세)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푸르메재단 백해림 기업협력팀장은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지만 의사소통 등 장애인이 실제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번처럼 검진 동선과 금식 시간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의사소통 노력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본 하루. “처음으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검진을 받았다”는 보호자의 말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금 깨닫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더욱 잘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푸르메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산하기관 소식

###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강화①

사람의 생애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복지에서도 이러한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유아기에는 장애의 조기 진단과 치료, 아동기에는 교육과 사회성 발달 지원이 필요하지요.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교육이, 성인기에는 취업과 주거, 사회참여 확대가 중요합니다. 푸르메재단과 산하기관은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사업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주도성을 반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지역주민이 ‘건강 파트너’가 되어 함께 산책하거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병원 진료나 시장에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안부를 나누고, 밥 한 끼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같이 그릇을 씻는 시간도 즐거웠고, 여러 지역주민과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전 처럼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놓이고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 참여자 김동현(가명)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 로봇재활치료 체계 구축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치료사들이 참여하는 ‘재활치료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푸르메와 함께 시작하는 청소년 직업연계 프로그램(푸.시.업)’, ‘푸르메x집 이음 프로젝트’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참여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을 총원해 소아정신과 진료를 확대했습니다. 푸르메로봇재활치료센터에는 ‘워크봇’을 추가로 도입해 국내 최초 통합 로봇재활치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평소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위험한 것은 없는지, 아이 치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치료사 선생님과 사회복지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보고서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집에서도 아이가 재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푸르메x집 이음 프로젝트 참여 이윤아(가명) 어린이 보호자

## 종로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자기주도활동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의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립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예약 사이트 활용을 비롯해 배달·지도·택시 앱 사용 방법을 배워 활용하고, 빨래나 청소, 쇼핑, 장보기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자립을 경험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청년 더+공간에서 네이버 예약 사용법을 배우고 주말에 미용실을 예약해서 다녀왔어요. 혼자 해본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에도 엄마 없이 혼자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혼자 머리 묶는 건 아직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면 잘할 것 같아서 노력하려고요.”

- 참여자 이정찬(가명)

### 자립전환지원프로그램 ‘청년 더+공간’



# 산하기관 소식

##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강화②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

#### 직원 대상 '지속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직원들이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강동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생활체육 및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했습니다. 이용자의 기초체력 증진과 신체 활동량 증가, 일상생활 활력 제공 등 다양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 참여자들의 태도와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돼 보호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체육시간에 뛰는 게 숨이 차는데, 그래도 운동을 잘하게 돼서 좋아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하고 나면 몸이 튼튼해져요.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매일매일 운동해요. 파크골프도 좋아요. 여름에는 더웠지만 공을 치면 재미있어요!”

- 제과제빵부 이용자

###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신체 성장이 빠르고 증상이 복잡하여 기성 보조기기 활용이 어려운 희귀질환 아동들을 위해 현장평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고가의 보조기구나 척추측만 등 2차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유지기기, 이동기기 등을 지원해 '보호자 만족도 98%'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참여자 한마디

“저희 아이는 레녹스-가스트 증후군으로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많고, 말로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동안 아이를 운전석 옆자리에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맞춤형 카시트를 지원받은 덕분에 이제는 아이가 안전한 뒷자리에서 편안히 이동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유빈(가명) 어린이 보호자

### 종로아이존

#### 집단프로그램 '함께 자라는 우리' 운영



발달장애 어린이의 사회적 경험을 돕는 집단프로그램 '함께 자라는 우리'를 운영했습니다. 집단미술활동을 통해 표현력을 키우고,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레고교실을 통해 협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보호자들로부터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아이가 사회적으로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이나 레고 활동 이야기를 하며 예전과 달리 의사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신감이 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아이가 즐거움 속에 성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승아(가명) 어린이 보호자

###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

#### 보편적 지원 및 신규 프로그램 도입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푸르메발달재활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재활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낮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동 개인별 특성에 맞는 사회성그룹(놀이·스누젤렌·음악) 프로그램을 구성해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체적 재활을 넘어 아동의 심리 안정 및 정서 발달을 위해 특수체육, 음악, 미술 치료 등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5월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아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발화가 되지 않았지만, 꾸준한 치료 덕분에 지금은 아주 좋아졌고 예후도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는 발달속도가 느리지만, 희망을 얻은 덕분에 조금해하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고 있어요. 치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혜원(가명) 어린이 보호자

# 인터뷰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원일 원장 & 홍지연 부원장

### 10년간 71만 명 어린이에게 기적을 선물하다

시민 1만 명과 기업 500곳의 나눔으로 탄생한 ‘기적의 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하 푸르메병원)이 2026년 개원 1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재활 병원으로, 전국을 떠돌던 수많은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희망’이 됐습니다. 이원일 원장과 홍지연 부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의료진과 부모가 손잡고 필요한 프로그램 도입

하루 500명, 10년간 71만 4,303명의 어린이가 이곳에서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맞춤형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총 치료건수 168만 313건, 2025년 말 기준). 정부가 전국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모델이자 한국 어린이재활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최초의 병원인 만큼 지난 10년간 스스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개원 초기 진료과장으로 부임해 10년을 함께한 홍지연 부원장은 “밤낮없이 일하며 병원 시스템을 갖춰 가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지금은 어린이재활 의료기관들이 우리 병원을 반드시 벤치마킹할 만큼 위상이 높아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푸르메병원은 선진 치료기법을 찾으면 의료진이 교육까지 받으며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영유아 조기중재 프로그램, 집중운동치료 등 병원을 대표하는 ‘생애주기별’ 특화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지요. 홍 부원장은 “뇌성마비 아이들은 학령기가 되면 뼈와 근육이 변형돼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하고도 전과 똑같은 형태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수술 후 약해진 근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집중운동치료를 진행했는데, 치료효과가 기존의 치료보다 좋았고 보호자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집중운동치료를 통해 사회참여도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매년 ‘재활치료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희망입니다.”



로봇치료



영유아조기중재 프로그램

### 첨단로봇으로 일상의 ‘눈높이’ 선물

3년 전 이원일 원장이 취임하며 병원에는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병원 공간을 재정비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푸르메로봇재활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보행(하지) 재활로봇 로코멧 프로와 엔젤렉스M20, 모닝워크S200P와 밤비니 틴즈를 갖추고, 2025년에는 유아부터 학령기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워크봇’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보행 동작을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는 실시간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과 상지재활로봇 4대 등도 구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치료 로봇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원장은 “휠체어에 앉아만 있던 아이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처음으로 일어서서 다른 사람과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본다. 3층 치료실에서 로봇을 착용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어린이도서관에도 가고, 카페에서 메뉴도 직접 고르기도 한다. 그런 일상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병원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전문센터(이하 ‘발달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이 원장은 “소아정신과와 소아재활과, 전문치료팀이 협업하며 정확한 진단과 알맞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발달센터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아정신과 영역은 최근 그 필요성이 커졌지만, 정작 치료받을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ADHD나 경계성 장애 등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많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면서 발달센터 건립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 병원 문을 연 지 10년. 재활치료를 받던 아이가 대학생이 된다면 감사인사를 하러 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푸르메병원에서 일하며 동생들을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매일 움트는 기적입니다. 더 많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도록, 푸르메병원은 계속 연구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 산하기관 소식

### 장애인과 지역사회 잇는 푸르메①

우리의 삶은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립하여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산하기관과 함께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架橋)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천시장애인복지관

#### 고령 장애인 및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고령 장애인과 노년기를 앞둔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 중심의 통합 돌봄 모형을 구축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옹호인을 1:1로 매칭해 경제, 주거, 건강 등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삶에 맞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만남 속에서 함께 웃고 서로를 응원하며 보낸 시간이 큰 기쁨으로 남았습니다. 고정순 님이 저를 처음 ‘언니’라고 불렀을 때는 다소 어색했지만, 제게도 동생이 생긴 듯한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니’라는 호칭 하나가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옹호인 전경옥

###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 지역사회와 함께 신규 사업 및 공연 ‘시간 멈춤: 그리고 우리’ 진행



마포구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으로 ‘현수막 제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포구청 및 관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인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마포ON햇살나눔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직원들이 4개월간 강사와 함께 연극을 준비해 마포구 주관 ‘2025 가을문화예술제’에서 선보였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공연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면서 노력했어요. 집에서도 대사와 노래를 연습했어요. 무대에서 할 생각 하니까 너무 떨렸습니다. 많은 분이 저희를 보러 와 주시고, 공연을 보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 가을문화 예술제 참가자 김현우

###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 지역연계 생존수영

한국우진학교, 하늘초등학교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연계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우진학교에서 뇌병변 장애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센터가 보유한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공유해 장애학생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장애학생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물속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수업에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을 접하고, 보호자도 수영교육의 중요성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생존수영 프로그램 참여자 김상훈(가명) 학생 보호자

## 산하기관 소식

### 장애인과 지역사회 잇는 푸르메②

####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 공공, 민간기관 연계 케이터링 진행



서울시인재개발원 고위직 공무원 교육 케이터링을 총 25회 진행하여 매출을 28% 향상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가, 총 2명이 종로점과 상암점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하였습니다. 1년 동안 발달장애 바리스타들과 함께 카페 업무지원 및 청소년 지원을 통해 근로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행복한베이커리&카페로 일하러 오는 아침에 매우 기분이 좋아요. 월급으로 맛있는 돈까스도 먹고 친구들과 약속해서 만나고 가끔씩 아버지께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이젠 내가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 서초점 바리스타 강지원

##### 무이숲

쿠키 판매, 캐릭터 굿즈 제작 등 기업과의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매출을 높였습니다. 5월에는 마비노기 유저와 시민이 직접 무이숲을 방문해 토마토 따기, 캐릭터 쿠키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11월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푸르메 낭만 팝업 in 성수’를 열어 경기도 여주까지 찾아오기 힘들었던 시민에게 무이숲을 알렸습니다.

##### 기업 및 시민 참여형 이벤트 진행



##### 참여자 한마디

“사고로 장애가 생긴 이후 늘 저를 걱정하시던 엄마가 ‘네가 당당하게 일하며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쁘고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커피를 내리고 토마토주스를 만들겠습니다.”

- 무이숲 바리스타 신다희

####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 아름다름 도서관 소풍



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아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그림책 놀이를 진행한 다음, 원아들이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과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를 견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13회에 걸쳐 223명의 어린이가 교육받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 참여자 한마디

“서로 다른 주인공들이 함께 어울리며 이해하는 과정을 담은 그림책을 선정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장애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의 삶을 돕는 보조기기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 하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진민경

####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센터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찾아가는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우진학교, 정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생과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대상으로 소독·세척 및 수리 서비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총 70건의 출장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는 전년 대비 약 15% 이상 증가하였고, 소독·세척 및 수리 서비스도 300건 이상 제공했습니다.

##### 찾아가는 보조공학 서비스 사업



##### 참여자 한마디

“아이가 목을 잘 가누지 못해 식사 후나 휴식시간마다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바운서도 더 이상 맞지 않고, 매번 안아 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착석자세유지보조기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어요. 착석자세유지보조기기를 지원받은 후로는 아이가 편안한 자세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서아(가명) 어린이 보호자 -

# 함께 나눔



총 기부자 수  
개인: **12,440**명  
기업: **455**개



더미라클스  
총 **43**명(신규회원 1명)



총 모금액  
**8,278,943,763**원



- 54 2025 푸르메 캠페인
- 55 인터뷰 | 류미애 마케팅팀 차장
- 56 함께하는 이웃: 박성우 교사
- 58 함께하는 기업

## 2025 푸르메 캠페인



###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한 걸음 '2025 푸르메워크 남산'

2025년 4월 19일 푸르메재단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며 '2025 푸르메워크 남산'을 개최했습니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걷기 대회입니다. 참가비는 전액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의 환아 치료비로 지원돼 더욱 의미가 깊었지요. 장애인과 그 가족, 오랫동안 푸르메와 함께한 기부자, 일반 시민 등 2,000여 명이 무장애길을 걸으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행사에는 푸르메재단 홍보대사인 이근호 축구해설위원,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푸르메워크의 뜻을 널리 알리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종로장애인복지관·파니스 등 푸르메재단 산하기관의 장애인 이용자들도 동참해 행사를 더욱 빛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6km 코스를 완주한 박예은 양은 "남산에 와본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걷는 것도 처음이라 정말 재밌었다"며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밝은 미소와 함께 소감을 전했습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기억하며 손을 잡아준 여러분 덕분에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는다"며 "오늘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기록 같은 변화를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열어 갈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기부자 마음 여는 푸르메의 목소리 류미애 마케팅팀 차장



"안녕하세요, 기부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 화벨이 울리고, 낭랑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푸르메재단에 전화한 기부자나 시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목소리, 마케팅팀의 류미애 차장입니다. 벌써 햇수로 9년째 모금과 기부자 관리 업무를 하는 베테랑으로, 2025년 1월부터 푸르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한 지 1년 남짓이지만, "기부자와 잘 소통한다" "친절하다" "잘 안내해 주어 감사하다" 등 가장 많은 칭찬을 들은 직원이지요. 따스한 목소리는 동료 직원에게도 힘을 나누어 줍니다.

기부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기에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기부자님과의 소통에서 제가 실수하면 재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상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늘 다짐합니다."

대면이 아닌 전화로 소통하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자신이 하는 말이 이해하기 쉬운지를 말할 때 늘 신경 씁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은 기본. 여기에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환한 미소와 맑은 목소리는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나눔 교육에서도 인기만점이었지요.

기부 외에 재단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의도 류 차장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단 내 모든 부서와 산하 기관들의 다양한 사업 내용을 숙지하고자 노력했지요. 류 차장은 "제가 하는 말이 재단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 되는 만큼, 많이 공부하고 신중하게 답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기부 문의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재단을 아셨는지 먼저 확인하고, 재단이 하는 다양한 일을 소개하면서 더 관심 가는 분야가 있는지 여쭙 보고 기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바쁜 업무 중 힘이 나게 하는 건 기부자들의 짧은 한마디입니다. "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느냐고 여쭙 봤을 때, '푸르메는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오랫동안 푸르메를 믿고 함께해 주신 분들을 더 따듯하고 정성스럽게 예우하고 싶다는 류미애 차장.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기부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이웃

# 12년째 학생들과 알뜰시장 열어 기부하는 송의초 박성우 교사



### “어릴 때 느낀 기부의 재미, 나눔 줄 아는 어른으로 키웁니다”

매년 여름 송의초등학교에서는 떠들썩한 행사가 하나 열립니다. 바로 5·6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알뜰시장’. 각자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바자회를 엽니다. 물건을 팔기 위한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모습에 웃음이 넘칩니다.

이 행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수익금을 재활치료 중인 또래 친구들을 위해 푸르메재단에 기부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세벳돈 기부로 시작된 송의초 학생들의 나눔은 이듬해 알뜰시장으로 이어졌고, 1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적 기부금도 2,150만 원에 달합니다. 매년 학생들과 함께 알뜰시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는 박성우 교사. 그는 “알뜰시장을 통해 아이들에게 기부의 재미와 기쁨을 알려 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나눔 교육 방법을 고심하다가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보자’고 했어요. 무엇을 가져와서 어떻게 팔까 고민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면서 아이들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이제 기부하러 간다’는 기대감과 설렘도 느끼지요. 이 모든 경험이 모여 아이들에게 ‘기부=기쁨·재미·행복’으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기금을 계속해서 푸르메재단에 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한 재단’, ‘장애 청년의 일터를 건립한 재단’, ‘믿을 수 있는 재단’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적은 돈을 들고 찾아오는 어린 학생들을 열렬하게 맞이하고, 오래 기억해 주는 푸르메재단의 모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재단 벽에도 우리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고작 100만~200만 원을 들고 찾아오는 초등학생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 주신 데 감동했어요. 사진 찍을 때도 재단 직원분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 쳐 주시고... 아이들이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도 알뜰시장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박 교사는 “며칠 전에도 20살 된 제자들이 우르르 찾아와 알뜰시장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덧붙입니다. “졸업생들이 오면 옛날 사진을 보면서 수다를 떨잖아요. ‘맞아, 우리 기부하러 갔었어’, ‘와! 저게 나야? 엄청 어려!’, ‘포즈 웃기다’ 하면서 왁자지껄 웃어요. 기부에 대한 좋은 기억,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훨씬 자연스럽게 기부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박 교사는 부인 손주희 교사(상명대 사범대 부속초)와 함께 세 자녀의 돌마다 200만 원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많이 기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지요. 작은 나눔이 주는 행복을 경험해야 어른이 돼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부함으로써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나눔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라는 박성우 교사의 진심은 싹을 틔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송의초를 졸업한 제자가 진학한 중학교에서도 바자회를 열어 기부한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박성우 교사와 송의초 작은 영웅들의 나눔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 함께하는 기업

2025년에도 많은 기업이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대모비스



(주)KT스카이라이프

현대모비스는 2014년부터 장애어린이의 이동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누적 지원금액은 55억 원에 달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했으며, 가족여행 등을 통해 장애어린이 가족의 휴식을 도왔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 온 든든한 후원기업입니다. 2025년에는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 기구는 물론 장애 형제·자매를 둔 비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체능 교육비와 워크숍을 지원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재단법인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2025년 10억 원을 기부하여 장애어린이 380명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했습니다. 민간 영역 최다(最多) 지원입니다. 특히 지원 가능 연령을 만 24세로 높이고, 학습용 보조기구까지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 뿐 아니라 장애 청년의 자립까지 지원했습니다.

2017년부터 푸르메재단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의 가치를 살펴보는 사회적 가치평가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건강 관리를 돕는 '장애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했습니다.

**1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 푸르다, 푸르메



## 푸르메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 미션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누리도록 사회변화를 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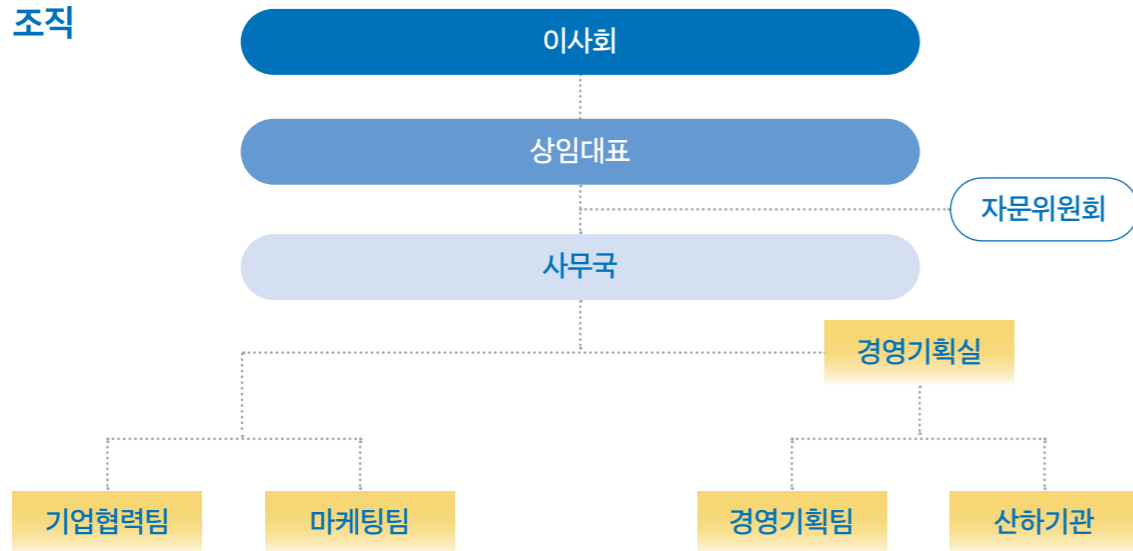
### 비전

혁신적 재활 및 자립 서비스로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모델 제시

### 핵심가치

전문성, 도전성, 투명성, 공감성

### 조직



### 주요 사업

재활의료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펼칩니다.
자립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도록 돕습니다.
장애가족지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형제자매, 그리고 부모까지 가족 단위로 통합 지원합니다.

### 이사회



명예이사장 김성수  
성공회 주교/  
우리마을 총장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



공동대표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공동대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변호사



상임대표 백경학  
前 CBS, 동아일보 기자



감사 김문규  
태울회계법인 이사



감사 이남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



이사 원택 스팀  
해인사 백련암 주지스님



이사 김용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사 김종구  
세신교회 담임목사



이사 광재복  
前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홍보대사



선 | 가수



이지선 | 작가·이화여대 교수



김민재 | 축구선수



이정후 | 야구선수



이종범 |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장·前 야구선수



엄홍길 | 산악인



서경덕 | 홍보전문가·  
성신여대 교수



이근호 | 축구해설위원·  
前 축구선수

##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이종수 위원장   사단법인 청년의뜰 이사장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용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은애   청년사회적경제지원단체 씨즈 이사장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동건   前 울산MBC 사장 정재권   KBS 이사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현수   前 국방정신전력원장
지원심의회위원회	
강용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권난실   다음세대재단 국장 김남욱   연세나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김은정   세종문화회관 음악감독 김희정   서울의료원 의료사회복지팀장 남장원   주식회사 키뮤 대표 문상진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장 문영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여진   스마일재단 국장 박미혜   前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서경주   서울시장애인부모회 마포지회 대의원 서은주   미래동행센터 대표 석도준   웰플란트치과의원 원장 유연성   유디임팩트 파트너 유은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이민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이상진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이상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획실장 이원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원장 이은아   비장애형제 자조모임 <나는> 대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정영만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과장 조준희   세브란스봄치과의원 원장 차지민   연세나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최경희   소풍커넥트 대표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남   前 하이브에듀 대표 한상용   온앤업 대표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지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
기부컨설팅위원회	
박태규 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현수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본부장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법률자문위원회	
유욱 위원장   태평양 NPO법률지원센터장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변호사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상용   전상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하기관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b>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b> 시민과 기업, 정부와 지자체의 힘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T. 02-6070-9000 H. www.purmehospital.org	<b>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b>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64 H. www.seoulats.or.kr
<b>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b>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재활·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발달 전문 기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1~2층 T. 02-6395-7025 H. www.ipurme.org	<b>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b>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체육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1층 T. 02-6070-9270 H. www.purmesports.or.kr
<b>종로아이존</b> 발달장애 어린이에게 다각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2층 T. 02-6395-7045 H. www.jongnoaizone.or.kr	<b>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b>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책을 읽는 문화공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1층 T. 02-6070-9286 H. mplib.mapo.go.kr/purme
<b>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b> 이웃과 함께 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속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700 H. www.seoulcbid.or.kr	<b>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b> 중증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90 H. www.mpvrc.or.kr
<b>과천시장애인복지관 다누리센터</b>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 T. 02-2185-8000 H. www.happyseed.or.kr	<b>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b> 중증장애인에게 제빵기술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80 H. www.panis.or.kr
<b>종로장애인복지관</b> 장애인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3층 T. 02-6395-7070 H. www.jpurme.org	<b>푸르메소셜팜</b> 장애청년이 즐겁게 일하며 자립하는 국내 최초 스마트농장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T. 031-882-5181 H. purmefarm.com
<b>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b>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91 H. www.seoulats.or.kr	<b>무이숲</b>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이 모두를 위한 베이커리 카페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T. 010-8107-2477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푸르메재단에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동의 없이 글, 사진, 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후원문의 02-6395-7008 이메일 hope@purme.org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01-927975(예금주: 재단법인 푸르메)



@purmefoundation



purmefoundation2005



푸르메재단



푸르메재단



purmefoundation